

#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 본당 소식

- ◆ 9월은 한국 순교자 성월입니다.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의 작은 신앙들이 그 분들의 신앙을 본 받을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 ◆ 대구 대교구 최영수(요한) 대주교님께서 8월 31일 선종 하셨습니다. 오늘 미사 끝에 연도를 다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하신 대주교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 ◆ 학생 복사단 모집 안내
  - 신청서는 김성하 가브리엘에게 (sunghakim7@gmail.com)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일시: 10월 4일 주일미사 후
  - 면접장소: Parish Center 내 본당신부 집무실
- ◆ 신 영세자 첫 고해를 위한 교육 안내
  - 대상: 8/16 (일) 세례를 받은 신영세자들
  - 일시: 9/19 (토) 오후 4시 30분
  - 장소: 추후공지
- ◆ 신 영세자 첫 고해 안내
  - 일시: 9/20 (일) 주일미사 시작 20분 전
  - 장소: Holy Family church 내 고해실
- ◆ 첫 영성체 어린이 첫 고해 안내
  - 일시: 9/27(일) 주일미사 시작 20분 전
  - 장소: Holy Family church 내 고해실

- ◆ 연경회 첫 모임 안내
  - 일시: 9/20(일) 주일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 ◆ 천교 준비 봉사자
  - 9월 6일: 김영숙    9월 13일: 서태수
- ◆ 9월 천교 후 정리 봉사: 정하상 구역
- ◆ 이호영 구역 모임
  - 일시: 9/12 (토) 오후 1시
  - 장소: Highbanks Park
  - 주소: 9466 Columbus Pike  
Lewis Center, OH 43035  
Oak Covers or Big Meadows Picnic Area
- ◆ 김제준 구역 모임
  - 일시: 9/12(토) 오후 7시
  - 장소: 구역장 자택 (614-218-2662)
- ◆ 황석두 구역 모임
  - 일시: 9/12(토) 오후 7시
  - 장소: 고상식(야고보) 형제님택
  - 주소: 4010 Laurel Valley Drive  
Powell, OH 43065
- ◆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보문의: 김성하 가브리엘 (sunghakim7@gmail.com)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72.00
교 무 금	\$1,420.00
BBA	\$100.00

- 교무금: 김명호, 문승태, 김태훈, 서경환  
김미영, 이인표, 박석현, 배상진
- BBA: 익명



#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연중 제23주일 September 06, 2009



<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

375~400년경, 대리석, 성비오크리스찬 갤러리, 바티칸 박물관

“예수님께서서는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셨다”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이사야서 4,1-2.6-8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화답송**

시편 146(145), 6c-7, 8-9, 9c-10 (◎ 1)

내 열흘아, 주님을 찬-양 하 여 라.

**제 2 독서** 야고보서 1,17-18.21c-22.27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골라,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

**복음** 마르코 7,31-37  
 “예수님께서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셨다”



##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923단 34명
이호영	430단 3명	24,1644단 167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430단 3명	2/22/04 -8/30/09 (288주)

♣ 총누계: 219,421단 12,802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9월 6일	9월 13일
해설자	고상식	안유신
독서/봉헌	정하상 구역	이호영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증거자의 모후

## 오늘의 성가

♫ 입당: 458      ♫ 봉헌: 219  
 ♫ 성체: 168, 169    ♫ 파견: 32

## 믿음을 가진 사람

허영엽 미타야 신부 | 서울대학교 문화홍보국장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 준 고마운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둘째날에는 새벽에 먼동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파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장애인 헬렌 애덤스 켈러 (Helen Adams Keller, 1880-1968) 여사의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이란 글의 일부입니다.

그는 장애와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성공한 현대의 위인입니다. 헬렌은 자신의 삶에 대해 “무엇이든지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든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걷고 뛰고 먹는 일상생활에 대해 별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보기 어렵고, 듣기 어렵고, 걷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어느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하느님의 구원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성경에서 귀머거리는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귀를 열어 주시고 굳은 혀를 풀어 주는 육체적인 치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악령의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령의 지배하에 있던 인간을 근본적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줄을 의미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고 구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영육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주님을 찾는 방법은 다만 네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사이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며 귀머거리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알아야 하며, 오로지 하느님께만 모든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서 너의 닫힌 귀를 열어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묶인 혀를 풀어 진리를 선포해라!”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하고 말씀하셨다(마르 7,34).